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5, pp.131-167
<https://doi.org/10.29212/mh.2022..125.1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4세기 후반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과 진포대첩

임형수 | 충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진포의 위치에 대한 사료 검토
 3. 왜구의 금강 유역 침구 양상
 4. 진포대첩 이후 왜구의 동향
 5. 맺음말

초 록 고려 말기 왜구의 침략에 관한 연구는 근래 지역사와 전쟁사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는 흐름과 맞물려 道나 郡縣 등 하나의 지역 단위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당시 왜구가 약탈을 목적으로 행정 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각지를 휩쓸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그러한 분석 방법은 특정 지역의 전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전반적인 침략 양

상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보고는 금강 줄기를 따라 중부 내륙지역으로 들어오는 경로에 주목하였으며 금강 유역이라는 광역 단위를 바탕으로 왜구의 침입 양상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왜구는 1376년부터 금강 유역을 본격적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목적은 鎭城倉의 수세 구역인 만경평야, 그리고 논산평야를 거쳐서 경상 지역으로 연결되는 수운을 이용해 내륙 각지를 침탈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1380년 진포대첩 이후에는 침략 활동이 누그러지기는 하였으나 기회를 엿보다가 요동 정벌처럼 방비가 소홀해지는 틈이 발생하면 재차 금강 하구를 공략하려고 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진포대첩과 관련하여 종래 서천과 군산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전장이 비정되었던 진포의 위치 문제를 다시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沈德符 行狀에 실려 있는 龍安鎭浦의 전투 기록은 조상의 현창을 위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 왜구, 금강 유역, 금강 하구, 진포, 진포대첩, 용안진포

(원고투고일 : 2022. 10. 11, 심사수정일 : 2022. 11. 9, 게재확정일 : 2022. 11. 25.)

1. 머리말

14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속에서 고려는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고 거듭되는 외침에 시달렸다. 특히 일본의 남북조 내란으로 파생된 倭寇는 1350년(忠定王 2)을 기점으로 거의 매년 고려를 침입하였다. 고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전국 곳곳의 해안과 강가에 상륙하여 횡행하는 왜구를 막아내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당시에 “연해 주군이 황량하고 텅 비었다.”¹⁾이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왕조교체를 앞당기는 부분적 요인이 되었다.²⁾

지금까지 왜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침입 양상과 피해 상황을 정리한 초기 연구를 비롯하여 왜구의 발생 원인이나 주체 문제, 금압을 위한 고려의 외교 노력 및 군사 대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근래에는 전쟁사와 지역사 분야 연구가 활성화되는 추세와 맞물려 왜구와의 싸움에서 대첩이라 부를 만한 사례를 조명하거나³⁾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왜구의 동향을 분석한 논저가 다수 발표되었는데, 이런 경우 한 개의 道⁴⁾ 내지

1) 『高麗史』 권107, 列傳30 鄭夢周.

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8:391쪽.

3) 金鍾洙, 「鎭浦大捷의 歷史的 意義」, 『全羅文化研究』 12, 2000; 李頌, 「홍산·진포·황산 대첩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日本歷史研究』 15, 2002; 이재범, 「변안열과 황산대첩」, 『대은 변안열의 생애와 업적』, 지식산업사, 2013; 임형수, 「1376년 鴻山 전투의 意義와 戰場에 대한 재고찰」, 『軍史』 98, 2016; 이영, 「진포구(鎭浦口)·남해 관음포(觀音浦) 해전과 고려 말 왜구 침구 양상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64, 2021.

4) 구산우, 「일본 원정, 왜구 침략과 경상도 지역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22,

는 특정 郡縣⁵⁾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약탈자인 왜구의 입장에서 충청과 호남 같은 행정 구역이나 지역 경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구애받을 이유도 없다. 당시 왜구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은 채 주변으로 퍼져나가 노략질하고 때로는 수백 리 넘는 지역을 휩쓸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본다면, 행정 구역별로 침략 행위를 자세히 정리하는 작업과 함께 광역 단위로 묶어서 전체 침략 양상을 조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구는 선박을 이동 수단으로 삼아 고려의 해안에 접근한 뒤 강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육지를 가로질러 내륙 깊숙이 진입하는 침탈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안에 있는 포구, 하구, 곳, 섬 등이 바로 왜구 침입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금강 하구에 해당하는 鎭浦와 그 뒤로 드넓게 펼쳐지는 금강 유역에 주목하였다.

진포는 예나 지금이나 전라와 충청의 경계이고 서해에서 중부 내륙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다름이 없으므로 그 방어 여부에 따라 금강을 끼고 있는 여러 군현의 안위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곳이었다. 사서에 “왜구가 진포로부터 양광, 경상, 전라 지역을 횡행하면서 군읍을 분탕질하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잡아가니 3도가 소란스러웠다.”⁶⁾라는 기록은 바로 그와 같은 정황을 보여준

2007 ; 손승철, 「고려시대 강원지역에 대한 왜구의 침탈과 대응」, 『江原史學』 24·25, 2010 ; 이정란, 「왜구의 충청 지역 침구의 시기별 추이와 고려의 대응」, 『史林』 52, 2015 ; 허인욱, 「고려 말 왜구의 전북지역 침입 연구—全州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46, 2015 ; 정영현, 「경남 지역의 왜구와 낙동강」, 『역사와 경계』 122, 2022.

5) 李鎭,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 李在範, 「고려말 조선전기의 왜구와 사천」, 『軍史』 58, 2006 ; 윤용혁, 「고려 말 보령지역의 왜구와 金成雨」, 『역사와 담론』 66, 2013 ; 윤용혁, 「고려 말의 왜구와 서산 부석사」, 『역사와 담론』 69, 2014 ; 정영현, 「여말선초의 濟州와 倭寇」, 『한국민족문화』 75, 2020.

6) 『고려사』 권137, 열전50 신창 원년 9월 경신.

다. 또한 왜구가 진포에 정박해 있으면서 인근 주군을 노략질하자 禰王이 사람을 보내어 전라와 양광의 2도에 방비 조치를 지시한 일⁷⁾, 그리고 양광도 林州(부여군 임천면)에 침입한 왜구를 全羅道兵馬使와 知益州事가 함께 싸워 물리친 일⁸⁾ 등은 적어도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만을 놓고 봤을 때 금강 이북과 이남 지역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진포를 주요 침투 경로로 파악하고 금강 유역이라는 광역 단위를 무대로 왜구의 침입 양상을 조망할 것이다. 아울러 금강 유역에서 벌어진 왜구와의 전투 중 가장 특기할만한 사건으로 鎭浦大捷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전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으므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2. 진포의 위치에 대한 사료 검토

진포는 1380년(禰王 6)에 고려 수군이 처음으로 화포를 사용해 왜구를 크게 격파한 진포대첩의 무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간 진포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출되었는데 忠南 舒川과 全北 群山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진포대첩의 전장으로 사료에 기록된 ‘鎭浦口’를 “서천~금강 어구”(또는 “서천, 금강 어구”) ⁹⁾라고 간략히 언급해오다가 근래 들어 사료 비교, 지형 조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舒川郡 長項岫 일대¹⁰⁾로 비정하고

7) 『고려사』 권137, 열전50 신우 14년 5월.

8) 『高麗史節要』 권30, 신우 2년 6월.

9) 李鉉淙, 「왜구」, 『한국사』 8, 국사편찬위원회, 1981, 223쪽 ; 金庠基, 『(新編)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636쪽 ; 朴龍雲, 『高麗時代史』, 一志社, 1987, 628쪽.

있다. 후자는 진포를 금강 하구 혹은 금강에 인접한 옛 沃溝 지역¹¹⁾이나 群山市 聖山面¹²⁾,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12漕倉의 하나인 鎭城倉의 위치를 기반으로 聖山面 倉梧里¹³⁾ 및 羅浦面 羅浦里¹⁴⁾ 등을 가리킨다고 파악하였다.

선행 연구는 대개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위시한 조선시대 문헌자료에 실려 있는 지명과 거리 등 각종 지리 정보를 저마다 근거로 삼고 있다. 아울러 진포라는 지명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 『高麗史』食貨志 成宗 11년(992) 朝宗浦 기사¹⁵⁾와 진포대첩의 전장이 서천임을 밝힌 18세기 英·正祖代의 『東史綱目』에 실려 있는 주해¹⁶⁾ 등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기록은 진포대첩이 일어난 해로부터 앞뒤로 무려 4백 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어서, 14세기 후반의 지리 인식과 괴리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모종의 요인이 작용하여 의미상 변화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당대의 지리 인식을 최우선으로 하여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까지 간행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진포의 위치에 대해 재검토를 시도하려고 한다.

가장 먼저 진포대첩이 일어난 시기와 다소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진포의 위치를 정의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0) 李頌, 『잊혀진 전쟁 왜구—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에피스테메, 2007, 157쪽.

11) 金중수, 『군산의 역사와 인물』, 국학자료원, 2021, 70·72쪽.

12) 羅鐘宇, 「홍건적과 왜구」,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410쪽.

13) 金중규, 「군산~강경의 수운(水運)과 나루터·포구의 유형」, 『금강 하구의 나루터·포구와 군산-강경지역 근대 상업의 변용—강(江)과 수운(水運)의 사회경제사(社會經濟史)—』, 선인, 2006, 47쪽.

14) 박영철, 「鎭浦와 鎭城倉」, 『전북사학』 44, 2014, 39쪽.

15) 『고려사』 권79, 志33 食貨2 漕運 成宗 11년, “朝宗浦, 前號鎭浦, 臨陂郡鎭城倉在焉”

16) 『東史綱目』 제16상, 우왕 6년 8월, “時賊五百餘艘, 入鎭浦口 【浦在今舒川郡南二十六里】 登岸”

가-1) 진포: (서천)군 남쪽 26리에 있는 海浦이다. 林川 古多津(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부터 舒川浦까지 진포라 통칭하는데, 그 사이 여러 津과 浦는 모두 진포를 건너는 곳이다(권19, 忠淸道 舒川郡 山川條).¹⁷⁾

가-2) (仇郎浦, 古多津, 江景津, 菁浦津, 南堂津, 上之浦津) 이상 6津은 모두 公州 熊津의 하류이며 韓山郡으로 들어가 진포가 된다(권17, 忠淸道 林川郡 山川條).¹⁸⁾

가-3) 진포: (임피)현 북쪽 17리에 있다. 공주의 웅진이 부여에 이르러 꺾어져 남쪽으로 흘러가 龍安縣(익산시 용안면)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나가며 바다로 들어가는데, 진포는 곧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다(권34, 全羅道 臨陂縣 山川條).¹⁹⁾

위의 사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가-1)은 진포가 고다진부터 서천포까지의 금강 줄기(아래 <지도 1> 참조)를 가리키는 말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가-2)는 진포가 한산군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며, 가-3)은 금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하는 등 가1)과 비교하면 다소 길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진포는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금강 하류 또는 금강 하구를 의미한다고 파악된다. 그러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전라와 충청을 가리지 않고 금강 하류에 접한 한산군과 옥구현, 하천물줄기가 금강 하류로 들어가는 礪山郡(익산시 여산면)²⁰⁾ 등에서도

17) 鎭浦, 在郡南二十六里海浦也. 自林川古多津至舒川浦, 通謂之鎭浦, 其間諸津浦皆鎭浦之渡涉處.

18) 已上六津皆公州熊津下流, 入韓山郡爲鎭浦.

19) 鎭浦, 在縣北十七里. 公州熊津至扶餘折而南, 至龍安縣東匯而西, 以入于海, 鎭浦乃入海處.

2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全羅道 礪山郡 山川條.

진포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선행 연구에서도 동일한 분석 방식을 통해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다만 진포가 금강 하류를 가리키는 말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진포대첩의 전장은 서천 장항과 군산 옥구 중 어느 한 편임을 제시함으로써²¹⁾, 결국 진포의 해석에 여러 개의 의미를 부여한 채 오히려 혼란을 더하고 있다. 진포를 금강 하류라는 구역이 아닌 특정 지점으로 보는 경우 부득이 전라와 충청의 어느 한 군현을 비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곧바로 사료 해석에 난항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진포를 서천 장항으로 본다면 1395년(太祖 4) 崔茂宣의 卒記에 실려 있는 ‘全羅道鎭浦’²²⁾라는 문구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반면에 군산 옥구로 본다면 ‘鎭浦之龍安’²³⁾ 같이 진포와 용안현이 함께 등장하는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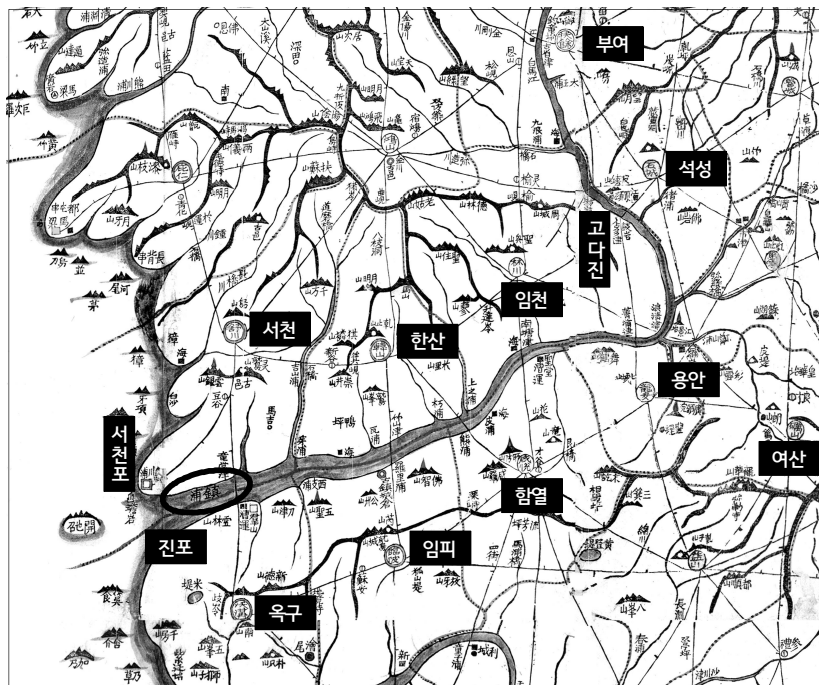
21) 즉 진포를 금강 하류라고 보면서도 ‘전라도 진포’는 금강 하류의 전라도 연안, ‘진포구’는 서천군 장항읍 일대라고 비정하였다(이영, 앞의 책, 149·153·157쪽). 이와 달리 진포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여 고려 초기에는 임피군 진성창, 고려 말기에는 전라도 영역,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금강 하구나 군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옥구의 특정 지역이나 금강 하구 유역 전체, 조선 후기에는 서천 방면을 지칭하는 의미로 정착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중수, 앞의 책, 61~70쪽).

22) 『太祖實錄』 권7, 4년 4월 19일 임오.

23) 『陽村先生文集』 권11, 龍安城漕轉記.

24) 기존 연구는 ‘全羅道鎭浦’와 ‘鎭浦之龍安’의 문구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진포를 서천 장항으로 보는 연구에 의하면 최무선 졸기가 작성되는 시기보다 한 해 앞서(1394) 양광도를 충청도로 개칭하여 당시 조정 관료들에게 충청도라는 지명이 익숙하지 않았고, 조선 왕실의 고향인 全州府가 중시되면서 금강의 남안이 북안보다 더 주목받게 되었으므로 ‘전라도’라는 관형어를 붙였다고 이해하였다(이영, 앞의 책, 153~154쪽). 한편 진포를 군산 옥구로 보는 연구에 의하면 「용안성조전기」의 ‘於全之界, 則得鎭浦之龍安, ……」을 ‘전주의 경계에는 용안에 있는 진포에, ……」(조창을 세웠다)라고 해석하면서 진포가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전라북도 영역 안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김중수, 앞의 책, 62~63쪽).

<지도 1> 「大東輿地圖」(奎10333)의 금강 하류와 인접 군현 부분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세기에 활동한 인물이자 진포로 비정되는 지역과 비교적 가까운 韓山郡 출신의 李穀(1298~1351) — 李穡(1328~1396) — 李鍾學(1361~1392) 3대의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각각 시를 지어 누차 고향의 정취를 노래한 바 있는데 간혹 진포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색은 “진포에 은퇴할 기약 저버린 지 이미 오래라”²⁵⁾, “나 또한 돌아가서 진포의 배를 타 볼까나”²⁶⁾라고 하였으며 아들인 이종학 역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데가 어디인가, 진포에

25) 『牧隱詩藁』 권10, 蒙賜田有感, “鎮浦鷗盟久已寒”

26) 『목은시고』 권5, 次金月塘所寄詩韻, “我亦歸乘鎮浦船”

있는 낚시터라네”²⁷⁾라며 시를 읊었다. 여기에서 언급된 진포는 대첩의 장소로 비정되었던 서천 장항이나 군산 옥구 등이라기보다 저들의 고향인 한산 일원²⁸⁾이라고 보는 쪽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된다. 이는 이색이 고향 한산의 훌륭한 경치를 알리기 위해 지었다고 밝힌 八詠詩 가운데 「鎮浦歸帆」²⁹⁾이 있다는 사실과도 부합된다.

또한 이색은 자기 고향을 말할 때 진포 외에 鎮江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내 집이 진강 가에 있고 성흥산과 거리가 겨우 30리이다”³⁰⁾, “우리 집은 진강의 어귀에 자리 잡고 있어”³¹⁾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강에 또 圓山이 있으니, 봄조수 따라³²⁾ 나의 배 띄우기 좋으리라”³³⁾라고 하여 금강에 나갈 일이 있으면 원산에서 자기 소유의 배를 탔음을 알 수 있다. 부친 이곡도 진강 원산에서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 부여 낙화암까지 갔다는 기록³⁴⁾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색의 詩題를 보면

27) 『麟齋遺稿』 關東錄 十九日曉吟二首, “思歸何處是, 鎮浦有漁臺”

28) 이곡의 집은 한산군 北古村(한산면 죽촌리)이었다(韓永愚, 「稼亭 李穀의 生涯와 思想」, 『韓國史論』 4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8, 3쪽). 이색은 어린 시절을 한산에서 보냈고 崇井山(기산면 황사리)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으며(『목은시고』 권17, 讀書處歌 并序) 금강으로 나갈 때는 圓山(화양면 옥포리)에서 배를 탔다(본문에 후술). 따라서 이들 3대가 한산에 머물 때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은 한산면, 기산면, 화양면 일원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본고에 인용된 이색의 작시 연대는 대략 1354~1379년(이익주, 「부록: 『牧隱詩藁』 작품연보」,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2013)으로 진포대첩 이전에 해당한다.

29) 『목은시고』 권3, 吾家韓山雖小邑 以予父子登科中國 天下皆知東國之有韓山也 則其勝覽不可不播之歌章 故作八詠云.

30) 『牧隱文藁』 권1, 此君樓記, “子家鎮江上, 距聖興山僅一舍”

31) 『목은시고』 권4, 扶桑吟, “吾家住鎮江口”

32) 금강하굿둑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조수 간만의 차가 窺巖津(부여군 규암면 규암리)까지 영향을 주었고 여기에 풍향까지 가세할 경우 선박의 주행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고 한다(김민영, 「금강 수운과 군산·강경지역 근대 상업의 변용」, 『금강 하구의 나루터·포구와 군산·강경지역 근대 상업의 변용—강(江)과 수운(水運)의 사회경제사(社會經濟史)—』, 선인, 2006, 136쪽).

33) 『목은시고』 권2, 通州, “鎮江有箇圓山在, 好逐春潮動我舟”

“옛날에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진포로부터 배를 타고 올라오다가 灌足寺 법회에 참여……”³⁵⁾라고 하여 배를 탄 곳을 진강 원산이 아닌 진포로 서술한 사례가 있다. 혹시 14세기에 한산이씨 3대가 말한 진포는 원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의심할 여지도 있지만, 위의 사료를 종합한다면 문맥상 한산에 포구로서 또 다른 진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포와 진강은 동일한 의미, 즉 한산군 남쪽에 있는 금강 하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 말기 한산이씨 3대의 진포에 대한 인식은 조선 전기 편찬된 지리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³⁶⁾ 『世宗實錄』 地理志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금강이라는 명칭을 일률적으로 쓰기 보다는 지역에 따라 赤登津(利山)→化仁津(沃川)→利遠津(懷德)→熊津(燕岐)→錦江(公州)→古省津(扶餘)→古多津(林川)→鎮浦³⁷⁾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앞의 가) 사례와 같이 하류 지역에서는 진포로 지칭하였다. 유사한 사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廣灘(滎山江)의 하류를 당시 錦江津, 錦川, 木浦, 南浦 등으로 불렀다는 기록³⁸⁾이 확인된다. 특히 權適(1094~1147)의 墓

34) 『稼亭集』 권5, 舟行記己丑之歲仲夏既望 自鎮江圓山夜半登舟 泝流至龍淵 天猶未明 已有松亭田居士與林州潘使君候于岸上 與之俱行 折旋而北 晚泊古城 明日至扶餘城落花岩下.

35) 『목은시고』 권24, 僧有辨來壬戌歲灌足寺彌勒石像龍華會者 求緣化文 既筆以與之 因記舊日陪慈堂自鎮浦浮舟而上 獲與是寺法會 癸卯冬 降香作法 皆如夢中 作短歌以記之.

36) 진포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서천군 남쪽 14리, 한산군 남쪽 9리에 있다고 기록되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서천군 남쪽 26리, 한산군 서쪽 21리에 있다고 기록되었다. 이처럼 양자 간에 거리와 방향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진포에 대한 지리적 인식의 변화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각주 21) 참고). 그러나 필자는 세종대부터 세조대까지 왜구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읍성을 축조하여 치소를 옮긴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 이해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적지 않은 분량이 요구되므로 여기서는 간략한 언급만 남겨 놓는다.

37) 『세종실록』 권149, 地理志 忠淸道 大川條.

3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全羅道 羅州牧 山川條, “錦江津, 一名錦川, 一名木浦,

誌銘을 보면 “錦城(나주) 남쪽에 木浦가 있는데 맑아서 밑바닥이 보일 정도였으나 (권적이) 임기를 다하여 대궐에 이르자 그 浦가 다시 탁해졌다.”³⁹⁾라는 내용이 주목된다. 이는 고려 중기에도 마찬가지로 목포가 영산강 하류를 의미했음을 보여준다. 보통 ‘浦’는 지명과 관련 있는 글자가 앞에 붙는 경우 배가 정박하는 포구로 간주하기 쉽지만, 위의 여러 기록을 통해 당시에는 조수가 드나드는 강의 하류 내지는 하구의 의미로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全羅道鎮浦’와 ‘鎮浦之龍安’ 등 기록도 역시 금강 하류로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와 관련된 사료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1) 경신년(1380) 가을에 왜선 3백여 척이 전라도 진포(全羅道鎮浦)에 침입했을 때 조정은 최공(최무선)의 화약을 당장 시험할 수 있는지 의논하였다. 이에 명하여 (최공을) 副元帥로 임명하고 都元帥 沈德符, 上元帥 羅世와 함께 배를 타고 火具를 싣고 바로 진포에 이르도록 하였다.⁴⁰⁾

나-2) 都觀察使 盧嵩이 이곳을 맡아 내려온 이래로 민생의 이득과 병폐를 빠짐없이 따져서 계획을 세우는데 漕轉에 더욱 뜻을 두었다. 장구한 계획을 세워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바다를 따라 보면서 그 땅의 이로운을 살폈다. 전주의 경계에서는 곧 진포의 용안(鎮浦

或云南浦。卽廣灘下流，在州南十一里”

39) 「權適墓誌銘」(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수 5875), “城南有木浦，澄清徹底，及調滿赴關，其浦還濁”

40) 『태조실록』 권7, 4년 4월 19일 임오, “及庚申秋，倭寇三百餘艘至全羅道鎮浦，朝議崔公火藥，今可試矣。乃命爲副元帥，與都元帥沈德符上元帥羅世，乘船齎火具，直至鎮浦”

之龍安)을 얻었고 나주의 경계에서는 목포의 영산(木浦之榮山)을 발견하였으며, 모두 물가에 언덕이 있는데 (가운데가) 솟아올랐고 (주위가) 활짝 트였다.⁴¹⁾

나-3) (제목) 용안에서 비바람에 막히어 벽상의 운을 써서 적다.

모악산 바람이 심히 노했으니

진포에 비가 막 개인 때로다

……(중략)……

맑은 새벽에 휘장 걷고 앉았노니

처마에 빗소리 깊기도 하여라

조수는 아득히 바닷가(浦)에서 나오고

새는 어두운 숲을 지나는가⁴²⁾

위의 사례 나-1)은 1395년 실록의 최무선 사망 기사에 첨부된 줄기의 일부분이다. ‘全羅道鎭浦’는 고려시대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나-1)이 조선시대 문헌에서 가장 시기가 앞선다. 여기에 기록된 진포 역시 금강 하류로 보아도 해석에 무리는 없을 듯한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전라도라는 행정 구획명이 앞에 붙었다는 것이다. 이는 나-2)의 得成倉 축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14세기 후반에 왜구의 침략으로 폐쇄된 금강 수계의 조창은 1390년에 용안의 득성창이 축조되면서 재개되었는데, 그 수세 구역은 전주를 비롯한 지금의 전북 일대에 해당한다. 금강 하류 이북인 서천, 한산, 임천 등의 조세는 泗州(당

41) 『양촌선생문집』 권11, 龍安城漕轉記, “都觀察使盧公嵩自分鉞以來, 民生利病, 悉究悉當, 其於漕轉, 尤致意焉. 欲立長策以利于民, 遵海而觀, 相其地利. 於全之界則得鎭浦之龍安, 於羅之界則得木浦之榮山, 皆有濱水之丘, 穹窿而曠”

42) 『佔畢齋集』 권22, 龍安阻風雨用壁上韻記之, “母山風怒甚, 鎭浦雨晴初…… 褰帷坐清曉, 屋霑雨聲深, 漠漠潮生浦, 冥冥鳥度林 ……”

진시 면천면)의 犯斤川에 모였으므로 사실상 진포의 관리 책임은 전라도에 맡겨졌다. 따라서 ‘全羅道鎭浦’는 진포의 관리 책임 소재를 나타낸 말이지, 진포라는 특정 지점이 전라도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충청도 부분에 진포가 언급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나-2)는 權近(1352~1409)이 지은 「龍安城漕轉記」의 일부로 1390년(恭讓王 2)에 전라도도관찰사 노승이 진포 용안과 목포 영산에서 조창의 입지를 찾았다는 내용이다. 이후 용안에 조창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1417년(太宗 17)부터 득성창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1428년(世宗 10)에 咸悅 皮浦의 德成倉으로 옮겨질 때까지 존속하였다. 여기 원문에 분명히 ‘鎭浦之龍安’이라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진포를 금강이 아닌 포구로 파악하여 ‘용안의 진포’라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포와 목포는 각각 금강과 영산강의 하류를 일컫는 말로 풀이된다.⁴³⁾

이어서 나-3)은 金宗直(1431~1492)이 용안에 왔을 때 지은 시이다. 여기에 등장한 진포는 용안현 내에 있는 나루로 볼 수도 있지만 시의 구조상 전주의 모악산과 대구를 이루며 자연지물로서 금강을 의미한다고 보는 쪽이 자연스럽다. 후미의 내용은 새벽에 금강으로 조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며 ‘浦’를 특정 지점, 즉 배로 강을 건너는 나루로 해석하면 여기에서 조수가 나올 리 없으므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43) 실록의 다른 기록, 예를 들면 ‘鎭浦之邊龍安沃溝’(『세종실록』 권36, 9년 5월 11일 무술)도 포구가 아닌 금강으로 이해되며 ‘진포(금강 하류) 가의 용안과 옥구’라고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까지의 문헌에서 진포가 주로 금강 하류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며, 만약 특정 포구라고 한다면 몇몇 사례의 해석에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범위는 기록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임천 고다진, 또는 적어도 용안부터 서천포까지의 구간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3. 왜구의 금강 유역 침구 양상

왜구는 1350년부터 고려를 본격적으로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약 20여 년 동안 왜구의 침입은 경상, 전라, 양광 3도의 도서와 해안에 집중되었고 아직 내륙지역까지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는데, 진포를 경유한 금강 유역의 침공은 한 차례 정도 확인되고 있다. 1358년(恭愍王 7)에 왜구는 금강 하구의 남북 양안을 침입하여 韓州(서천군 한산면)와 임피 진성창을 약탈하였다. 그 여파로 全羅道鎭邊使 高用賢의 요청에 따라 연해에 위치한 창고를 내지로 옮기는 조치가 있었다.⁴⁴⁾ 이외에 왜구는 진포를 공격하거나 강을 거슬러 내륙으로의 진입을 시도한 일이 없다.

그런데 1370년대에 접어들면 왜구의 침입이 예전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일본에서는 북조의 무로마치(室町) 막부가 규슈탄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을 보내어 1370년부터 규슈 내의 남조 세력을 타도하기 시작하였는데, 내란 평정 과정에서 탈락하여 근거지를 잃은 세력들은 일시적인 피난처를 찾아 고려로 쫓겨하였고, 이들이 대거 가담하면서 왜구는 해안의 군

44)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 7년 4월 정유.

현과 조창을 공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점차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장기간에 걸쳐 약탈을 일삼게 되었다.⁴⁵⁾ 한편으로 1375년(우왕 1)에 全羅道元帥 金先致를 시켜 내투 왜인 후지 쓰네미쓰(藤經光)를 살해하게 하였다가 실패하는 등 고려 조정이 왜구를 크게 자극한 사건도 발단이 되었다. 이를 기폭제로 삼아 왜구는 종전보다 한층 더 잔인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사서에 의하면 “처음에 왜구가 주군을 노략질하면서 사람은 죽이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격노하여 매번 들어와 노략질할 때마다 부녀자와 어린 아이까지 남김없이 도살하였으니, 전라와 양광의 연해 주군이 황량해지고 텅 비게 되었다.”⁴⁶⁾라고 한다. 위와 같은 국내외 요인들로 인해 1375년 이후 왜구의 도래는 더욱 빈번해졌고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금강 유역에 대한 침입도 점점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376년에 왜구는 6~7월 두 달 동안 林州, 扶餘, 公州, 石城, 連山, 朗山, 豐堤, 鴻山 등을 휩쓸고 다녔다(아래 <지도 2>⁴⁷⁾ 참조). 당시 왜구는 사람들을 배에 태우고 장차 돌아갈 듯이 행세하면서 몰래 정예 수백 명을 깊이 보내어 약탈을 자행했으며, 그들이 지나는 곳마다 바라보기만 할 뿐이고 감히 상대하는 자들이 없었다고 한다.⁴⁸⁾ 사료상에는 임주를 시작으로 침입이 이어지는데 위의 군현이 대부분 금강에 인접해있고 사람들을 배에 태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왜구가 진포로 들어와서 금강의 수운을 활용해 각지를 침구했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고려는 柳滌을 전라도원수, 柳實을 전라도병마사에 각각 임

45) 정영현, 「고려 禡王代 倭寇의 동향과 성격 변화」, 『역사와 세계』 33, 2008, 177~185쪽.

46) 『고려사절요』 권30, 신우 원년 7월.

47) 이하 <지도2:3:4>는 李頌,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99, 244쪽 圖3과 245쪽 圖4를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48) 『고려사』 권113, 열전26 崔瑩.

명하여 내려보냈다.49) 그들이 임주, 낭산, 풍제에서 적을 물리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부 거두었지만 공주목사 金斯革이 공주 鼎峴에서, 양광도원수 朴仁桂가 연산의 開泰寺로 향하는 적을 막다가 전사하는 피해를

<지도 2> 1376년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 상황



를 보았다. 이에 최영은 왜구의 기세가 올라 전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휘하를 거느리고 내려갔고 홍산에서 싸워 승리를 거둠으로써 금강 유역에서 왜구의 모습은 잠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불과 석 달이 되지 않아 왜구는 10월부터 다시 진포로 들어와 한주를 약탈하였다. 이후 인근 지역을 침탈한 기사가 나오지 않으므로 더 이상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오지는 않은 듯하다.

1377년 10월부터 왜구는 금강 유역에 대한 침구 활동을 재개하여 咸悅을 시작으로 扶餘, 定山, 鴻山을 차례로 노략질하였다. 이듬해 3월에 진포 지역인 韓州와 林州를 치더니 9월에는 公州, 尼山, 連山, 懷德, 珍同, 沃州, 靑山⁵⁰⁾ 등 점점 금강 상류의 내륙지역으로 밀려 들어왔다. 고려는 왜구와 싸운 경험이 풍부한 韓邦彦과 李琳을 각각 양광도와 진라도의 助戰元帥로

49)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2년 6월.

50) 『고려사절요』 권30, 신우 4년 9월.

임명하였다.⁵¹⁾ 10월에 다행히 한방언이 그들을 공격해 전과를 거둔⁵²⁾ 뒤로는 주변에 별다른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 잠잠해진 것으로 보인다.

1379년의 경우 『고려사』 세가와 『고려사절요』 등 정사의 연대 자료에는 왜구가 진포와 금강 유역을 약탈한 기사가 나와 있지 않다. 『牧隱詩藁』를 보면 “楊二相이 회군하여 廣州에 이르렀다가 적이 진포에 있다는 말을 듣고 즉각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말을 듣는다.”⁵³⁾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목은시고』가 거의 날짜 순서대로 편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대략적인 시기를 계산해보면 1379년 5월 19~25일⁵⁴⁾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楊二相, 즉 贊成事 楊伯淵은 이해 5월 晉州에서 왜구를 물리친 일⁵⁵⁾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목은시고』의 시제로 보아 그는 회군하던 중 왜구가 진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토벌을 위해 도로 내려간 것이 된다. 이외에 별다른 기록이 없으므로 쌍방의 교전 여부는 알지 못하나 진포의 사태는 그대로 일단락되었다.⁵⁶⁾

위와 같이 왜구는 규슈의 혼란과 후지 쓰네미쓰 사건 등으로 더욱 흥포해진 이래 1376~1379년 동안 매년 진포를 침입하였다. 비록 문헌자료에 그해 왜구가 진포를 침입했다는 기사가 없더라도 진포 지역에 해당하는 군현이나 배후에 있는 금강 수계의 군현 중 여러 곳이 공격받았다고 한다면, 진포를 통해 금강 유역으로 들어오는 침입 방식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51)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4년 9월.

52)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4년 10월.

53) 『목은시고』 권16, 聞楊二相回軍至廣 聞賊在鎮浦 卽刻南下.

54) 이정란, 앞의 논문, 153쪽.

55)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5년 5월.

56) 선행 연구에서도 양자가 매우 짧은 기간 싸웠거나 아니면 아예 교전이 성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고려군이 도착할 때가 되면 왜구가 이미 바다로 나가 싸워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서술하였다(이정란, 앞의 논문, 154쪽).

대부분의 경우 일차적으로 진포를 침입했다고 보아야 한다. 고려는 왜구가 진포를 침입해 주변의 여러 군현을 유린하면 그때 가서야 양광도와 전라도에 장수를 파견하여 금강의 북안과 남안을 각각 방어하게 하였으며, 몇몇 지역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사태를 일시적이거나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진포에 수군을 주둔시켜 상시 틀어막지 않는 한 금강 유역으로 쇄도하는 왜구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려에서는 도해하는 왜구에 대한 근본적인 방어책으로 공민왕대부터 이미 水戰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는데⁵⁷⁾, 이 무렵에 최무선의 건의로 火筒都監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하고 군사들에게 화포 쏘는 법과 수전을 익히게 하는⁵⁸⁾ 등 海防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었다.⁵⁹⁾ 이러한 노력은 다음의 진포대첩에서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다.

1380년 7월에 왜구는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와서 西州를 시작으로 扶餘, 定山, 雲梯, 高山, 儒城, 靑陽, 新豐, 鴻山, 錦州, 沃州, 咸悅, 豐堤, 公州 등 금강 유역의 동서남북 각지를 대거 침입하였다(아래 <지도 3> 참조). 당시 왜구는 배 500 척으로 鎭浦口에 들어와 큰 밧줄로 서로 잡아매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해안에 상륙하여 주군으로 흩어져 들어가 방화와 약탈을 자행하였으니, 시체가 산과 들을 덮고 배로 곡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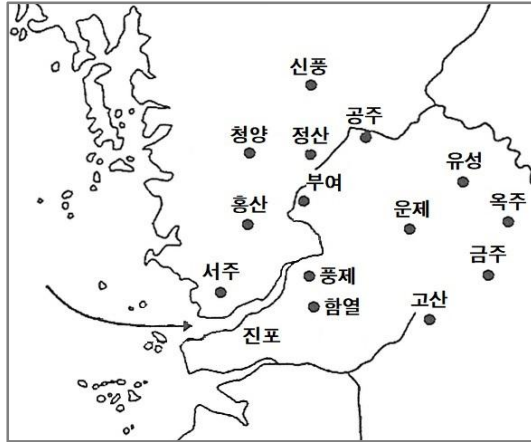
57) 『고려사』 권83, 志37 兵3 船軍 공민왕 22년 5월; 권113, 열전26 鄭地; 권115, 열전28 李穡.

58)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3년 10월·4년 3월.

59) 고려의 화약 개발과 수군 육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 성과가 있으므로 간단히 언급하였다. 許善道,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上)」, 『歷史學報』 24, 1964; 鄭義然, 「고려말 정지와 최무선의 남해 관음포대첩」, 『慶南鄉土史論叢』 VI, 慶南鄉土史研究協議會, 1997; 金琪燮, 「高麗後期 崔茂宣의 생애와 화약제도」,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이재범, 「고려후기 왜구와 해양방어대책」, 『이순신연구논총』 13, 2010; 신성재, 「고려 말 鄭地의 海防論과 수군활동」, 『이순신연구논총』 23, 2015.

운반하면서 땅에 버려진 쌀이 한 자나 쌓였다고 전한다.⁶⁰⁾ 우선 진포를 침입한 왜구 선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문헌별로 1천 척⁶¹⁾, 5백 척⁶²⁾, 3백여 척⁶³⁾, 1백 척⁶⁴⁾ 등 다양하게 기록되어 자못 혼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정확

<지도 3> 1380년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 상황



한 수효가 어찌 되었든 간에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많은 수에 속하며, 그때까지 진포에 들어왔던 왜구 규모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반영하듯 한 달 남짓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포부터 유성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침구하였다.

당시 왜구 선단이 주둔한 진포구가 어디인지를 두고 기존에는 서천 장항과 군산 옥구 가운데 어느 한쪽을 드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진포대첩의 전장이 어디였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60)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6년 8월, “倭賊五百艘入鎮浦口, 以巨絙相維, 分兵守之, 遂登岸散入州郡, 恣行焚掠, 屍蔽山野, 轉穀于其舶, 米棄地厚尺”

61) 『東文選』 권117, 特進輔國崇祿大夫青城伯沈公行狀.

62) 『고려사』 권114, 열전27 羅世 ; 권126, 열전39 姦臣2 邊安烈 ;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6년 8월 ; 『태조실록』 총서 신우 6년 8월.

63) 『태조실록』 권7, 4년 4월 19일 임오.

64) 『세종실록』 권48, 12년 4월 13일 계미. 1380년 5월에 진포대첩을 앞두고 왜선 1백여 척이 結城과 洪州를 침입한 적이 있다. 이들이 그대로 진포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종 12년의 기록이 시기상 가장 후대에 해당하나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문제이기도 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수백 척을 한 번에 연결하든지, 수십 척으로 나누어 연결하든지 간에 어느 한 편만 왜구가 주둔했다고 보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애초에 양광과 전라의 경계 지대인 진포 수역이 전장이라면 북안과 남안 중 한쪽에서만 싸움이 벌어졌다고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심지어 왜구가 배를 연결해 마치 금강하굿둑처럼 강을 통째로 막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왜구가 어느 한 편에 주둔해서 그 방면만을 공략할 리가 없다. 이는 당시 기록에 왜구의 첫 번째 침입 지역은 서천으로 확인되지만 곧이어 양광과 전라를 가리지 않고 여러 군현을 공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특히 ‘鎭浦口’라는 기록에 의존해서 금강 하구에 있는 서천 장항이나 군산 옥구가 전장이었다고 비정할 수 없다. 이색이 자기 집이 있는 한산을 ‘鎭江口’⁶⁵⁾라고 기술한 바 있으며, 진포와 진강이 동일한 의미로 쓰였음을 고려하면 당시 진포구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금강 하구 지역보다 더 넓을 수 있다. 따라서 진포대첩의 전장은 특정 지점을 지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간단히 말해 금강 하구 일대, 다만 지금의 인식보다 좀 더 넓은 지역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해둔다.

고려는 금강 유역의 여러 군현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왜구의 근거지가 되어 버린 진포를 평정하려고 하였다. 이에 羅世, 沈德符, 崔茂宣 등이 왕명을 받아 전함 1백 척을 이끌고 내려갔으며 처음으로 화포를 사용하여 왜구를 대거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승첩 직후에 나

65) 각주 31) 참고. 진포와 진강이 동일한 의미로 쓰였음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다.

세 등이 그대로 귀환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다음의 기록은 용안에서 또 다른 전투가 있었을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다) 경신년(1380)에 왜구가 **戰艦 1천 척**으로 우리나라 남쪽 변방을 침입하여 지나는 곳마다 남김없이 부수었으나 여러 장수가 모두 막지 못하였다. (왜구가) 싸우면서 **龍安鎮浦**에 이르니 그 세력을 매우 떨쳤다. 僞主(우왕)가 공(심덕부)에게 명하여 樓船 40척을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게 하였다. 적이 배를 네모나게 모아 진을 치고 칼날과 화살촉을 부딪치니 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공은 조금도 두려운 기색 없이 일거에 다 섬멸하였다.** 이로부터 왜구가 다시 날뛰지 못하였다.⁶⁶⁾

위의 사료 다)는 『東文選』에 실려 있는 심덕부(1328~1401)의 行狀인데 여타 문헌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진포대첩과 관련하여 다양한 추측을 낳게 한다. 만약 다)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龍安鎮浦, 즉 용안의 진포 수역에서 심덕부가 40척 규모의 선단을 이끌고 왜구의 전함 1천 척을 섬멸한 셈이 된다. 이는 진포대첩에 대한 여러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적선의 규모가 1천 척으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화포 사용이나 나세와 최무선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심덕부의 분투로 승패를 결정지은 듯이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사료 다)에 기재된 전투 규모나 경과 등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덕부의 전공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사실을

66) 『동문선』 권117, 特進輔國崇祿大夫青城伯沈公行狀, “庚申, 倭寇以戰艦千艘, 侵我南鄙, 所過殘滅靡遺, 諸將皆不能禦. 轉鬪至龍安鎮浦, 其勢甚張. 僞主命公將樓船四十往討之. 賊方舟而陣, 鋒鏑磨戛, 聲振天地. 公略無懼色, 一舉盡殲. 自是倭寇不復跳梁”

다소 부풀렸다고 판단된다. 행장 말미를 보면 세종 초기에 실록을 편수하는 과정에서 史官이 심덕부의 행장을 요구하였는데, 그 子姪이 모두 어렸으므로 孫壻 姜碩德이 평소 들은 바를 모아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대략적인 찬술 경위가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太宗實錄』에 실린 심덕부의 졸기를 보면 진포대첩에 대해서 “경신년(1380)에 왜구가 우리 남쪽 변방을 노략질하여 그 기세가 심히 컸는데, 심덕부가 누선 40척을 이끌고 가서 토벌하니 왜구가 다시는 날뛰지 못하였다.”⁶⁷⁾라고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이는 사관이 행장의 내용 중에서 과장된 부분을 덜어내고 신빙성이 있는 내용을 요약해 남긴 결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사료 다)에서 ‘龍安鎮浦’를 진장으로 기록한 점이 주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포와 용안이 함께 언급된 사례로는 ‘鎮浦之龍安’과 ‘鎮浦之邊龍安沃溝’ 등이 있으며 내용상 용안의 소재가 진포 안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사료 다)는 ‘진포’와 ‘용안’이 뒤바뀌어 있어서 ‘용안 관내의 진포 수역’이라는 의미 외에 달리 해석할 만한 여지가 없다.⁶⁸⁾ 지금으로서는 사료 다)와 교차 검토할 수 있는 사료가 거의 없어서 ‘龍安鎮浦’의 해석은 무엇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67) 『太宗實錄』 권1, 1년 1월 14일 갑술, “庚申, 倭寇我南鄙, 其勢甚張, 德符將樓船四十艘往討之, 寇不復跳梁”

68) 이 밖에 당시 전라도 북부 지역의 조세가 용안 특성창에 모여 진포를 통해 운반되었기에 착각했다든지, 또는 잘못 전해 들어서 진포와 용안의 순서를 실수로 뒤바꾸어 기술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심덕부가 선단을 이끌고 용안에서 왜구를 격파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진포대첩이 용안까지 확대되었거나, 혹은 용안이 진포구에서 대략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별개의 전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4. 진포대첩 이후 왜구의 동향

진포대첩에 대한 평가는 왜구의 침입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일부 있지만⁶⁹⁾, 그보다는 아무래도 『고려사절요』의 기록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왜구가 진포의 패배 이후 군현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살육과 약탈을 마음대로 하니 적의 기세가 더욱 거세졌으므로 3도의 연해 지역이 황량하게 텅 비었다. 왜구의 환란이 있는 이후로 이와 같은 적이 없었다.”⁷⁰⁾ 라고 서술하였다.

진포에서 살아남은 왜구는 패배에 양심을 품고 사로잡은 자녀들을 거의 다 죽인 다음, 남은 병력을 수습하여 옥주에서 다른 지역에 있던 부대와 합세하였다.⁷¹⁾ 그리고 내륙을 가로질러 利山, 永同, 黃澗, 禦侮, 中牟, 化寧, 功城, 靑利, 尙州, 善州, 京山, 沙斤乃, 南原, 雲峯, 引月 등을 지나오며 맹위를 떨치다가 결국 荒山에서 크게 패하였으며 지리산에 숨어들었다가 뗏목을 타고 겨우 1백 명 남짓 정도가 살아서 돌아갔다.⁷²⁾ 이처럼 진포대첩 직후 고려가 최종적으로는 황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타고 돌아갈 배를 잃은 왜구가 금강 상류에 집결해 내륙을

69) 『태조실록』 권7, 4년 4월, “壬午自爾倭寇漸息, 乞降者相繼, 濱海之民, 復業如舊”는 최무선의 줄기인데 황산대첩과 함께 그 전공을 기리고 있어서 진포대첩만 오로지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세종실록』 권48, 12년 4월 13일 계미, “自是以後, 莫與兵船抗拒, 往往雖或寇邊, 有同鼠竊, 不得安然留泊深入爲寇”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황산대첩과 관음포해전을 함께 고려한 평가이다.

70)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6년 8월, “賊自鎮浦之敗, 攻陷郡縣, 奮肆殺奪, 賊勢益熾, 三道沿海之地蕭然一空. 自有倭患, 未有如此之比”

71)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6년 8월.

72)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6년 8월·9월 ; 『세종실록』 권48, 12년 4월 13일 계미.

종단함에 따라 여러 군현을 휩쓸면서 갖은 만행을 저지르는 부작용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왜구는 진포를 통해 금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기존 전략을 수차례 시도하였다. 1382년(우왕 8) 2월에 왜구는 임주를 침입하여 진포 침입을 재개하였고, 다음 달인 윤2월에는 다시 임주, 부여, 석성을 차례로 침입하였다. 그해 10월에는 왜선 50척이 대거 진포로 들어오자 이전부터 해양 방어와 수군 육성을 주장해오던 海道元帥 鄭地가 해전을 벌여 격퇴하고 群山島까지 추격하여 4척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⁷³⁾ 특히 이듬해 5월에 정지는 觀音浦(南海郡) 해전에서 화포를 사용해 왜구를 크게 무찔렀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왜구의 전략에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라) 왜적이 더욱 깊이 들어와 계해년(1383) 여름에는 원주, 춘천을 지나 철원의 경계를 범하였고 양주, 광주를 침입하였다가 공주의 수령을 살해하였다. 그 왜구들이 모두 여기 丑山島로부터 들어왔는데, 한 고을이 수비를 잃자 3도가 화를 입었으니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듯 이와 같이 참혹하였다.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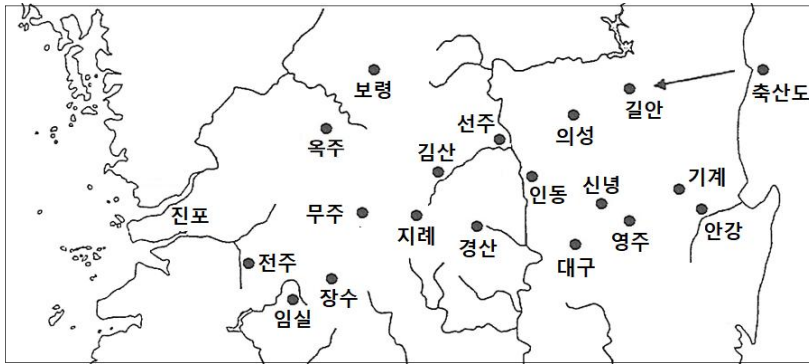
위의 내용은 왜구가 동해안의 寧海府 丑山島를 근거로 삼아 원주, 춘천, 철원, 양주, 광주, 공주 등지를 침입했다는 기록이다. 그와 조금 다르기는 하나 『고려사』를 보면 관음포해전이 벌어진 직후인 6~8월간 대략 吉安, 安康, 杞溪, 永州, 新寧, 義城, 大邱, 京山, 善州, 仁同, 知禮, 金山 등을 거쳐서 마침내 沃

73)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8년 10월.

74) 『양촌선생문집』 권11, 寧海府西門樓記, “至癸亥之夏, 歷原春而犯鐵原之界, 侵楊廣而害公州之倅. 其寇皆自茲丑山島而入, 一邑失守, 三道被禍, 唇亡齒寒”

州와 報寧까지 육박했음이 확인된다(아래 <지도 4> 참조).⁷⁵⁾ 다시 말해 동해안에서 경상 내륙지역을 횡단하여 금강 상류지역을 침입하고 있는 것이다.⁷⁶⁾ 이는 금강 유역을 침입하는 새로운 전략이기는 하지만 내륙을 관통해야 하고 더욱이 진포까지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⁷⁷⁾ 1384년 2월에 왜구는 진포에 다시 출몰하기 시작하였다.⁷⁸⁾ 앞서 정지에게 패배한 뒤로는 침탈 행위를 자제하고 사태를 관망하며 틈을 노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도 4> 1383년 왜구의 내륙 침입 상황



1387년 10월부터 왜구는 임주를 시작으로 한주, 서주, 홍산 등을 공격함⁷⁹⁾으로써 침입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때 도순문사

75) 『고려사』 권135, 열전48 신우 9년 6월·7월·8월.

76) 관음포해전 이후 왜구의 축산도 침입은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정영현, 『동해안의 왜구와 쓰시마 埴田氏』, 『한국민족문화』 67, 2018 ; 이영, 앞의 논문 2021.

77) 1383년 6~8월에 경상도를 침입한 왜구 일부는 무주와 임실을 거쳐 전주까지 침입하였다(허인옥, 앞의 논문, 106~108쪽). 이것이 당시 왜구가 진포에 가장 가까이 도달한 사례이다.

78) 이때 왜구는 주변 군현을 침입하지 않은 채 사로잡은 부녀 25명을 작은 배에 싣고 와서 돌려보냈다(『고려사』 권135, 열전48 신우 10년 2월). 현재로서는 기록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

79) 『고려사』 권136, 열전49 신우 13년 10월.

王承寶가 응전하였으나 당해내지 못하였다. 1388년 5월에 왜구는 고려의 요동 정벌을 기회 삼아 80척을 이끌고 진포에 정박한 뒤 인근 고을을 노략질하였다.⁸⁰⁾ 이는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반대하며 제시한 4불가론의 하나인 “온 나라의 군사들이 원정에 나서면 왜적이 허점을 노려 침구할 것입니다.”⁸¹⁾가 현실화된 것이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무진년에 우리나라가 요동을 치는 일이 있어서 전함이 비어 있음을 알고 진포에 와서 정박하고 경상도까지 들어와 노략질하고 돌아갔다.”⁸²⁾라고 하였는데, 『고려사』 등을 보면 실제로 왜구는 금강 유역의 연산, 청주, 유성, 진잠 등을 공격하고 이어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경상도의 상주, 옥주, 황간, 영동 등을 침입하였다.⁸³⁾ 요동 정벌 때 왜구의 진포 침입 사건은 뒤이어 거행된 쓰시마 정벌의 발단이 되었다.⁸⁴⁾ 고려가 수전에서 누차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구의 상륙을 모두 막을 수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남아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금압 방법은 그들의 본거지를 타격하는 일이었다.

요컨대 1380년에 진포를 침입한 왜구는 진포대첩 이후 잔당을 모아 육지에서 맹위를 떨치다가 황산에서 궤멸되었으며, 2년 뒤 다시 진포 침입을 재개하다가 이번에는 정지의 수군에게 패배하였다. 곧이어 관음포해전 이후 왜구는 동해안의 축산도를 통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침입하는 전략을 취하였는데, 1387년부터는 다시 진포를 침입하고 있다. 즉, 왜구는 진포에서 고려 수군과 두 차례 싸워 모두 패배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진포에 대한

80) 『고려사절요』 권33, 신우 14년 5월.

81) 『고려사절요』 권33, 신우 14년 4월.

82) 『세종실록』 권48, 12년 4월 13일 계미, “歲戊辰, 賊知我國有攻遼之役, 而戰艦空疎, 乃來泊鎮浦, 歷至慶尙, 入寇以歸. 惟我太祖在潛邸, 握兵機, 赫然有怒, 翌年己巳, 謀遣邊將, 率兵船往泊對馬, 焚賊船數十而返”

83) 『고려사절요』 권33, 신우 14년 8월.

84) 각주 82) 참고.

침입 빈도가 줄어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회를 엿보다가 틈이 생기면 진포를 재차 공략하려고 하였다.

끝으로 왜구가 진포를 끈질기게 침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임피 진성창의 존재를 거론할 수 있다. 진성창의 수세 구역은 全州, 臨陂, 進禮, 金堤, 金溝 등으로 인근의 부안 安興倉에 비해 광범위하였고⁸⁵⁾ 대부분 금강이 아닌 만경강의 충적평야에 해당하였는데 이곳은 곡창지대로서 산출이 많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⁸⁶⁾ 또한 전라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개경으로의 항해 거리가 짧을 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육로 및 하천 수운의 이용 등 교통 조건이 양호하였다. 왜구가 침입 초기부터 곧장 진성창을 공격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조창을 내지로 옮기고 조운을 중지한 뒤에도 진포의 남안은 변함없이 곡창지대였으므로 계속해서 왜구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금강을 거슬러 올라갈 경우 내륙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376년에 고려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뱃길이 막히자 조운을 중지한⁸⁷⁾ 시기를 전후하여, 왜구는 진포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금강 수계를 따라 인근 지역을 약탈했으며 때에 따라서는 경상도 옥주까지 진입하였다. 진포대첩처럼 왜구의 대규모 선단이 침입한 것은 경상과 전라 등 타지에 비해 개경과 가까워 중앙에서 파견되는 토벌군을 의식한 면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역시 금강 유역이 넓고 중간에 논산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그만큼 약탈해서 실어 나를만한 물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85) 한정훈,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혜안, 2013, 191~193쪽.

86) 『세종실록』 권74, 18년 7월 21일 갑인.

87)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2년 윤9월.

5. 맺음말

지금까지 14세기 후반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과 관련하여 진포의 해석 문제, 진포대첩의 전장 비정, 심덕부 행장의 용안진포 전투, 진포대첩 이전과 이후의 침략 양상, 왜구의 진포 침입 목적 등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하였다. 몇 가지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까지의 문헌 자료에서 진포는 특정 지점이 아닌 금강 하구 또는 하류 지역을 가리키는 일종의 범칭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그간 진포를 서천 장항과 군산 옥구로 보는 견해에서 각각 설명하기 어려웠던 ‘奎羅道鎮浦’나 ‘鎮浦之龍安’ 등도 역시 진포가 금강 하류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고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 진포대첩 직전에 왜구가 서천 장항과 군산 옥구 가운데 어느 한 편에만 주둔했다고 보는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왜구가 진포에 들어온 이후 양광과 전라를 구분하지 않고 침략한 점과 이색이 한산을 ‘진강구’라 서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나 지금의 인식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금강 하구 일대에서 진포대첩이 벌어졌다고 이해하였다.

세 번째로 심덕부 행장에 기재된 용안진포 전투는 찬자 강석덕이 처조부인 심덕부의 전공을 돋보이게 하고자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심덕부 행장은 『태종실록』의 심덕부 줄기 및 진포대첩을 전하는 여타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적의 규모가 몇 배로 부풀려져 있을 뿐 아니라 화포 사용이나 다른 장수에

관한 내용 없이 오로지 심덕부의 분투가 승패를 결정지은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역설적으로 과장된 측면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네 번째로 왜구의 진포 침입은 1376년부터 격화되었는데, 진포대첩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나누어 금강 유역의 침구 양상을 각각 정리하였다. 왜구는 주로 진포를 통해 금강 수계를 거슬러 올라오는 방식으로 주변 지역을 약탈하였고, 고려는 그때마다 장수를 파견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나 바다에서 오는 적을 막아내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고려 조정은 화포를 개발하고 수전을 익히게 하는 등 해양 방어책을 모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380년 진포대첩과 1382년 관음포해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왜구는 두 차례 패전 이후에 다소 주춤했으나 얼마 뒤부터 다시 틈을 노려 진포 침입을 시도하였으며, 요동 정벌 시기에는 80척의 선단이 진포에 정박하고 금강 유역을 거쳐 경상도 지역까지 노략질하였다. 마침내 고려 조정은 왜구의 근절을 위해 1389년(昌王 1)에 쓰시마 정벌을 단행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로 왜구가 진포를 침입한 이유로써 금강 하류 이남의 조세가 모이는 진성창과 그 수세 구역인 평야 지대의 경제적 이점, 금강 수계를 통한 내륙 진입의 용이성, 금강 유역에 인접한 군현이 갖는 물산의 풍부함 등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앞으로 왜구의 활동을 광역 단위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문헌 곳곳에 산견되는 여러 지역의 침입 사례를 일정한 개연성을 갖고 연결하는 일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사료는 군현 단위 명칭만 언급하거나 다수의 군현을 한 번에 열거하고 있으므로 왜구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추후 논고를 통해 하나씩 보완해나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전쟁사와 지역사 분야의 연구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사료

『稼亭集』, 『高麗史』, 『高麗史節要』, 『權適墓誌銘』,
『大東輿地圖』, 『東文選』, 『東史綱目』, 『麟齋遺稿』,
『牧隱文藁』, 『牧隱詩藁』,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陽村先生文集』, 『佔畢齋集』, 『太祖實錄』

2. 단행본

김민영·김중규, 『금강 하구의 나루터·포구와 군산·강경지역 근
대 상업의 변용—강(江)과 수운(水運)의 사회경제사(社
會經濟史)—』, 선인, 2006.

<http://uci.or.kr/G701:B-00091437142@N2M>

金庠基, 『(新編)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http://uci.or.kr/G701:B-00047809892@N2M>

김종수, 『군산의 역사와 인물』, 국학자료원, 2021.

朴龍雲, 『高麗時代史』, 一志社, 1987.

<http://uci.or.kr/G701:B-00047852709@N2M>

李頌,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99.

<http://uci.or.kr/G901:A-0006838866@N2M>

이익주,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2013.

<http://uci.or.kr/G901:A-0006437684@N2M>

한정훈,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혜안, 2013.

<http://uci.or.kr/G901:A-0006460241@N2M>

- 이성무 외, 『대은 변안열의 생애와 업적』, 지식산업사, 2013.
<http://uci.or.kr//G901:A-0006457116@N2M>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8)—고려 후기의 사회와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981.
<http://uci.or.kr//G901:A-0006487717@N2M>
- _____, 『한국사(20)—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1994.
<http://uci.or.kr//G901:A-0006487726@N2M>
- 이영, 『잊혀진 전쟁 왜구—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예피스테메, 2007.
<http://uci.or.kr//G701:B-00107281289@N2M>

3. 연구논문

- 구산우, 「일본 원정, 왜구 침략과 경상도 지역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http://uci.or.kr//G901:A-0003423078@N2M>
- 金琪燮, 「高麗後期 崔茂宣의 생애와 화약제도」,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http://uci.or.kr//I410-ECN-0101-2010-911-001641928@N2M>
- 金鍾洙, 「鎭浦大捷의 歷史的 意義」, 『全羅文化研究』 12, 2000.
<http://uci.or.kr//G701:B-00093223438@N2M>
- 박영철, 「鎭浦와 鎭城倉」, 『전북사학』 44, 2014.
<http://uci.or.kr//G901:A-0003507051@N2M>
- 손승철, 「고려시대 강원지역에 대한 왜구의 침탈과 대응」, 『江原史學』 24·25, 2010.
<http://uci.or.kr//G901:A-0008150918@N2M>

신성재, 「고려 말 鄭地의 海防論과 수군활동」, 『이순신연구논총』 23, 2015.

<http://uci.or.kr//G901:A-0003845297@N2M>

윤용혁, 「고려 말 보령지역의 왜구와 金成雨」, 『역사와 담론』 66, 2013.

<http://uci.or.kr//G901:A-0003485326@N2M>

_____, 「고려 말의 왜구와 서산 부석사」, 『역사와 담론』 69, 2014.

<http://uci.or.kr//G901:A-0003498199@N2M>

李頌, 「홍산·진포·황산 대첩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日本歴史研究』 15, 2002.

<http://uci.or.kr//G901:A-0002641756@N2M>

_____,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http://uci.or.kr//G901:A-0003390616@N2M>

_____, 「진포구(鎭浦口)·남해 관음포(觀音浦) 해전과 고려 말 왜구 침구 양상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64, 2021.

<http://uci.or.kr//I410-ECN-0102-2022-900-000319818@N2M>

李在範, 「고려말 조선전기의 왜구와 사천」, 『軍史』 58, 2006.

<http://uci.or.kr//G901:A-0002230994@N2M>

이재범, 「고려후기 왜구와 해양방어대책」, 『이순신연구논총』 13, 2010.

<http://uci.or.kr//G901:A-0002881224@N2M>

이정란, 「왜구의 충청 지역 침구의 시기별 추이와 고려의 대응」, 『史林』 52, 2015.

<http://uci.or.kr//G901:A-0003725370@N2M>

임형수, 「1376년 鴻山 전투의 意義와 戰場에 대한 재고찰」, 『軍史』 98, 2016.

<http://doi.org/10.29212/mh.2016..98.75>

정영현, 「고려 禡王代 倭寇의 동향과 성격 변화」, 『역사와 세계』 33, 2008.

<http://uci.or.kr//G901:A-0002554070@N2M>

정영현, 「동해안의 왜구와 쓰시마 早田氏」, 『한국민족문화』 67, 2018.

<http://doi.org/10.15299/jk.2018.05.67.199>

_____, 「여말선초의 濟州와 倭寇」, 『한국민족문화』 75, 2020.

<http://doi.org/10.15299/jk.2020.05.75.225>

_____, 「경남 지역의 왜구와 낙동강」, 『역사와 경계』 122, 2022.

<http://doi.org/10.52271/PKHS.2022.04.122.53>

鄭義然, 「고려말 정지와 최무선의 남해 관음포대첩」, 『慶南鄉土史論叢』 VI, 慶南鄉土史研究協議會, 1997.

<http://uci.or.kr//G901:A-0008474327@N2M>

韓永愚, 「稼亭 李穀의 生涯와 思想」, 『韓國史論』 4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8.

<http://uci.or.kr//G901:A-0001251737@N2M>

許善道,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上)」, 『歷史學報』 24, 1964.

<http://uci.or.kr//G901:A-0000100379@N2M>

허인욱, 「고려 말 왜구의 전북지역 침입 연구—全州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46, 2015.

<http://uci.or.kr//G901:A-0003731695@N2M>

(Abstract)

Japanese Pirates' Intrusion into the Geum River Basin and the Battle of Jinpo in the Late 14th Century

Lim, Hyung-soo

The studies of the Japanese pirates' invasion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often examine one regional unit, such as provinces, counties, or prefectures, according to the recent flow in which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ctively in the fields of local history and war histor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Japanese pirates at the time swept places regardless of the administrative division for plunder, such an analysis method is advantageous in that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war situation in a specific area closely but it is not enough for understanding the general patterns of aggression. Thus,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route coming into the central inland region along the course of the Geum River and would summarize the aspects of the Japanese pirates' invasion into the wide area of the Geum River basin.

Japanese pirates invaded the Geum River basin in earnest in 1376, which aimed at plundering all over the inland, using the water transport connecting through the Mangyeong Plain, the tax collection district of Jinseongchang and the Nonsan Plain to the Gyeongsang Region. In addition, since the Battle of Jinpo in 1380, the invasion activity calmed down, but they would attack the Geum River basin again, seizing negligence in surveillance as in the Liaodong Conquest while watching for an opportunity. In particular, this study reexamined the issue of the battlefield that was previously identified as Seocheon or Gunsan, concerning the Battle of Jinpo and pointed out that the records of battles in Yongan-Jinpo shown by Shim Deok-Bu's conduct were partly exaggerated to honor the ancestor.

Keywords : Japanese pirates, Geum River basin, Geum River Estuary, Jinpo, Battle of Jinpo, Yongan-Jinpo

